

회 계 학

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(회계기간)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, 기업은 계속해서 「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」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.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(예: 법인세 효과 등)은 고려하지 않는다.

문 1. 회계정책,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,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- ②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, 새로운 정보의 획득,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추정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. 성격상 추정의 수정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.
- ③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,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.
- ④ 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고, 과거 재무자료의 요약에 포함된 과거기간의 정보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기간까지 소급재작성한다.

문 2. (주)한국의 20×1년 상품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, 20×1년 매출총이익과 기말상품재고액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기초상품재고액: ₩ 100,000
- 4월 8일: 상품 ₩ 900,000을 현금 매입
- 7월 7일: 원가 ₩ 700,000(판매가 ₩ 910,000)인 상품을 시용 판매
- 12월 8일: 고객으로부터 시용 상품(판매가 ₩ 650,000)에 대해 구매 의사표시 받음

매출총이익	기말상품재고액
① ₩ 150,000	₩ 350,000
② ₩ 150,000	₩ 500,000
③ ₩ 210,000	₩ 350,000
④ ₩ 210,000	₩ 500,000

문 3. (주)한국은 20×1년 12월 초 회계관련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. 한 달 동안의 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, 20×1년 당기순이익은?

구분	거래 내역
12월 초	○ 주식 1,000주(주당 액면가 ₩ 500)를 액면가로 발행하고 현금 납입받다.
12월 중	○ 일회성광고를 하고, ₩ 150,000을 현금 지급하다. ○ 회계자문용역을 제공하고, 용역대가 ₩ 1,200,000을 현금 수취하다. ○ 회계교육용역을 제공하고, 용역대가 ₩ 500,000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다. ○ 사무실용 비품을 ₩ 100,000에 취득하고,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.
12월 말	○ 당월분 전기사용료 ₩ 80,000을 현금 지급하다. ○ 당월분 사무실 임차료 ₩ 200,000을 현금 지급하다. ○ 당월분 직원급여 ₩ 300,000을 현금 지급하다. ○ 당월분 비품 감가상각비 ₩ 2,500을 인식하다.

- ① ₩ 867,500
- ② ₩ 870,000
- ③ ₩ 967,500
- ④ ₩ 970,000

문 4.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일시적차이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이며,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구분된다.
- ②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이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말하며, 만약 그러한 경제적이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면,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일치한다.
- ③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.
- ④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며, 이후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도 환입하지 않는다.

- 문 5. (주)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·판매하고 있으며, 연간 최대생산 능력은 600단위이다. (주)한국은 매년 500단위의 제품을 생산·판매하였으며, 이에 대한 공헌이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.

매출액(단위당 판매가격 ₩200)	₩ 100,000
변동원가	₩ 60,000
공헌이익	₩ 40,000
총고정제조간접원가	₩ 10,000
총고정판매비와관리비	₩ 20,000
영업이익	₩ 10,000

(주)한국은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200단위를 단위당 ₩ 180에 구입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는데, 이 특별주문은 200단위 모두를 수락하거나 아니면 거절해야 한다.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의 증가액은? (단, 특별주문을 수락하더라도 추가 설비 증설은 없으며, 이를 제외한 시장 수요에는 변화가 없다)

- ① ₩ 2,000
- ② ₩ 4,000
- ③ ₩ 12,000
- ④ ₩ 36,000

- 문 6. 「국가회계예규」의 ‘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관서 재무제표는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소관 중앙관서별로 통합하여 작성하고, 국가 재무제표는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대한민국 정부로 통합하여 작성한다.
- ②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한 자산·부채, 순자산, 수익·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한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산·부채, 순자산, 수익·비용을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않고, 주석으로 공시한다.
- ③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재정운영표에 “기타재원조달”과 “기타재원이전”을 인식하거나 순자산변동표에 “재원의 조달 및 이전”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무상이전거래를 제거한다.
- ④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된 “국세수익”은 국가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순원가의 “국세수익”으로 직접 표시한다.

- 문 7. (주)한국은 20×1년 초營業을 개시하였으며, 제품 4,000단위를 생산하여 3,400단위를 판매하였다. 20×1년 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?

○ 단위당 판매가격	₩ 150
○ 단위당 직접재료원가	₩ 30
○ 단위당 직접노무원가	₩ 18
○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	₩ 14
○ 단위당 변동판매비와관리비	₩ 5
○ 총고정제조간접원가	₩ 240,000
○ 총고정판매비와관리비	₩ 80,000

- ①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(또는 영업손실)의 차이는 ₩ 36,000이다.
- ② 전부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(또는 영업손실)의 차이는 ₩ 55,200이다.
- ③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재고액은 ₩ 37,200이다.
- ④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재고액은 ₩ 28,800이다.

- 문 8. (주)한국은 20×1년 초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(기간: 3년, 계약금액: ₩ 2,000,000)를 진행하고 있으며, 진행률은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추정하고 있다. 20×1년 공사원가가 ₩ 300,000 발생하였고, 완성시까지 추가소요원가는 ₩ 900,000이다. 20×1년 공사대금으로 ₩ 350,000을 청구하였다면,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약자산(미청구공사) 금액은? (단, (주)한국은 건설용역에 대한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)

- ① ₩ 110,000
- ② ₩ 150,000
- ③ ₩ 200,000
- ④ ₩ 500,000

- 문 9.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재무제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다.
- ② 경영진은 별도의 감독이사회(비집행이사로만 구성)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. 그러한 경우, 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위하여 승인한 날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다.
- ③ 보고기간후사건은 이익이나 선별된 재무정보를 공표한 후에 발생하였더라도,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.
- ④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,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.

문 10. (주)한국은 20×1년 초 영업을 개시하였으며,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. 20×3년 말 발행주식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보통주	주당 액면금액 ₩ 1,000, 발행주식 수 3,500주
우선주	주당 액면금액 ₩ 1,000, 발행주식 수 1,500주 (연 배당율 5%, 누적적, 완전참가적)

(주)한국은 20×1년과 20×2년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, 20×3년 이익배당을 위해 20×4년 3월 주주총회에서 보통주에 대한 5%의 배당율과 ₩ 1,000,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. 보통주와 우선주에 배분되는 배당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	보통주 배당금	우선주 배당금
①	₩ 355,000	₩ 645,000
②	₩ 405,000	₩ 595,000
③	₩ 595,000	₩ 405,000
④	₩ 645,000	₩ 355,000

문 11. (주)한국의 20×1년 초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₩800,000, 부채총액 ₩500,000이다. 다음 거래 내역과 관련 결산조정 사항을 반영한 20×1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 (단,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)

일자	거래 내역
3월 1일	1년치 화재보험료 ₩ 120,000 현금 지급하고 전액 비용 인식
8월 1일	1년치 건물임대료 ₩ 240,000 현금 수취하고 전액 수익 인식

	자산총액	부채총액
①	₩ 560,000	₩ 380,000
②	₩ 920,000	₩ 500,000
③	₩ 940,000	₩ 640,000
④	₩ 1,040,000	₩ 620,000

문 12. (주)한국은 20×1년 초 영업을 개시하고,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채택하였다. 20×1년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₩ 70,000, 예정배부액은 ₩ 60,000이고, 기말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.

기말재공품	기말제품	매출원가
₩ 56,000	₩ 70,000	₩ 154,000

제조간접원가의 배부차이를 매출원가조정법에 의해 회계처리할 때, 총원가기준 비례배분법에 의한 회계처리에 비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?

- ① ₩ 4,500 감소
- ② ₩ 4,500 증가
- ③ ₩ 5,500 감소
- ④ ₩ 5,500 증가

문 13. 금융자산의 재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 - 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 -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며,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.
- ②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 - 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,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한다.
- ③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 -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,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재분류로 인해 조정한다.
- ④ 금융자산을 당기손익 - 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된다.

문 14.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.
- ②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하여야 하는데, 예를 들어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한다.
- ③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하며,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지 않는다.
- ④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며,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.

문 15. (주)한국은 20×1년 초 기계장치(내용연수 3년, 잔존가치 A, 연수합계법, 월할 상각, 원가모형 적용)를 ₩ 20,000에 취득하였다. 20×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 ₩ 5,000, 사용가치 ₩ 4,000, 손상차손 인식액 ₩ 6,000이다. 20×1년 초 기계장치 취득시의 잔존가치 'A'는? (단, 잔존가치의 변동은 없다)

- ① ₩ 1,000
- ② ₩ 2,000
- ③ ₩ 3,000
- ④ ₩ 4,000

- 문 16. 중앙관서 A 부처는 B 기업과 'XYZ'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계약기간은 20×1년 10월 1일부터 20×2년 9월 30일까지이며, 계약금액은 ₩100,000이다. 계약서상 A 부처는 20×1년 12월 1일 ₩40,000, 20×2년 6월 1일 ₩60,000을 청구할 수 있다. 'XYZ'수익이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에 해당될 경우, A 부처의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)
- ①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×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₩0이다.
 - ②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×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₩40,000이다.
 - ③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×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₩25,000이다.
 - ④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×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₩60,000이다.

- 문 17. (주)한국은 20×1년 초 다음의 조건으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.

- 액면가액: ₩500,000(만기 3년)
- 표시이자율: 연 2%(매년 말 지급)
- 발행일 현재 일반사채 시장이자율: 연 10%
- 만기 상환할증금: ₩40,000

20×1년 초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발행시 인식한 신주인수권대가가 ₩69,430일 경우, 20×1년 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장부금액은?

- ① ₩433,627
- ② ₩453,876
- ③ ₩463,627
- ④ ₩500,000

- 문 18. 주식기준보상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,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.
- ②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일에 추정할 때, 그 주식선택권에 채부여특성이 있다면 채부여 특성을 고려하고, 사후적으로 부여된 채부여주식선택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한다.
- ③ 만약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된다면, 기업은 그 지분상품의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을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받는다고 본다.
- ④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거래를 측정하는 때에는,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되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.

- 문 19. 금융상품: 표시의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할 수 있다.
- ②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며, 그 미래현금흐름은 해당 금융상품과 조건, 신용상태, 현금흐름이 유사하고 전환권이 있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다.
- ③ 발행자는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좀 더 유리한 전환비율을 제시하거나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.
- ④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하며, 최초 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. 만기 시점에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.

- 문 20. (주)한국은 20×1년 초 (주)대한이 발행한 사채를 ₩1,050,000에 취득하고,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. 사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- 액면가액: ₩1,000,000(만기 3년)
- 표시이자율: 연 12%(매년 말 지급)
- 발행시 유효이자율: 연 10%
- 취득시 사채의 신용은 손상되어 있지 않음
- 기대신용손실

기대신용손실	20×1년 말	20×2년 말
12개월	₩2,000	₩4,000
전체기간	₩5,000	₩5,000

(주)한국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해 20×1년 말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, 20×2년 말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. 20×3년 초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₩1,000,000에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손익은?

- ① 처분손실 ₩13,500
- ② 처분이익 ₩13,500
- ③ 처분손실 ₩18,500
- ④ 처분이익 ₩18,500

문 21.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는 보조금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수익접근법과 보조금을 하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본접근법이 있다.
- ②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.
- ③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의 수취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요한 변동을 일으키므로 재무상태표에 보조금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지와 관계없이 자산의 총투자를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변동을 주식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.
- ④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며, 보조금의 수취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.

문 22. (주)한국은 20×1년 초 본사 건물을 ₩5,000,000에 취득(내용연수 20년, 잔존가치 ₩50,000, 정액법, 월할 상각)하면서 다음 조건의 국채를 액면가액으로 의무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. 다음 중 옳은 것은?

- 액면가액: ₩1,000,000(만기 5년, 만기 일시상환)
- 표시이자율: 연 4%(매년 말 지급)
- 시장이자율: 연 10%
- 이자율 10%, 5년 ₩1의 현재가치수 0.6
- 이자율 10%, 5년 ₩1의 연금현재가치수 3.8

- ① 건물 취득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₩5,722,000이다.
- ② 건물 취득원가는 ₩5,248,000이다.
- ③ 국채 취득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₩152,000이다.
- ④ 국채 취득원가는 ₩848,000이다.

문 23.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기능통화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판단하여 실제 거래, 사건과 상황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기능통화를 결정한다.
- ②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.
- ③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.
- ④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 중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.

문 24. (주)한국은 20×1년 1월 1일 건물을 ₩500,000에 취득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. (주)한국은 20×2년 7월 1일 동 건물을 유형자산(내용연수 10년, 잔존가치 ₩0, 정액법, 월할 상각)으로 분류를 변경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. 각 시점별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은?

○ 20×1년 12월 31일	₩550,000
○ 20×2년 7월 1일	₩600,000
○ 20×2년 12월 31일	₩580,000

- ① 20×1년 건물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해 기타포괄이익이 ₩50,000 증가한다.
- ② 20×2년 유형자산(건물)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면, 건물로 인해 20×2년 당기순이익이 ₩30,000 증가한다.
- ③ 20×2년 유형자산(건물)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면, 건물로 인해 20×2년 기타포괄이익이 ₩10,000 증가한다.
- ④ 20×2년 유형자산(건물)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면, 건물로 인해 20×2년 당기순이익이 ₩50,000 증가한다.

문 25. 「국가회계예규」의 ‘원가계산에 관한 지침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주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계산하며, 국가회계실체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현금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.
- ② 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로 구분되며, 정부원가계산은 회계의 내용에 따라 그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.
-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관리자, 예산편성 관계자 등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주요 사업의 원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가 집계 대상에 따라 원가를 산출하여 관리하되, 재정운영표에는 프로그램별로 총원가와 순원가를 표시하여야 한다.
- ④ 원가계산기간은 「국가회계법」에서 정하는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내부관리 목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세분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.